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

제주농협, 내달 마늘 수확에 5000명 모집 나서…고령농 등 지원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본부장 윤재춘)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제주 마늘 수확을 위한 무상 인력 지원에 나선다.

제주농협은 다음 달 '국민과 함께하는 마늘 수확 일손 돕기'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제주 마늘 재배 면적은 1088ha로, 수확에 총 3만3000여 명이 필요하다.

농협은 농가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마늘 수확 봉사를 할 인력 5000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주요 기관, 단체, 기업 200여 곳에 협조문을 발송했다. 자원봉사 인력이 모이면 5월 1~24일 대정읍, 안덕면, 한경면 등 서부지역에 먼저 지원하고, 남은 기간은 조천읍과 구좌읍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 농가들이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수확 봉사 참여자들에게 이동 지원, 점심, 장갑 등 봉사용품, 안전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행정 및 기관·단체 관계자 1300명, 군부대 장병 1289명과 농협 임직원 및 육성 조직 회원 877명, 대학생 554명, 법무부 직원 270명 등 총 4290명이 참여해 208농가 55.5ha의 마늘 수확을 도왔다.

도내 마늘 재배 면적은 2013년 3394ha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다. 최근 5년간 재배면적은 2019년 1964ha, 2020년 1879ha, 2021년 1600ha, 2022년 1260ha, 2023년 1242ha다.

이규식 제주농협 농촌지원단장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들에게 함께하는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주리 기자

"장애인 고령 기준 유동적으로 적용해야"

〈65세〉

도의회 사회보장특위 토론회서 서비스 확대 근거 마련 필요 지적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대상 고령 연령 기준을 유동적으로 적용하고 제도와 목적에 맞는 연령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지난 12일 제주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루터대학교 노승현 교수는 고령 장애인 개념과 연령 기준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장애인 대상 고령 연령 기준은 유동적이어야 하며,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연령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울시복지재단 김현승 박사는 고령화되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에 대해 돌봄, 건강권, 장애노화특성 등에 대한 기준을 통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에서는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근로 여건의 제도적 변화, 고령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근속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실태조사, 생애주기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이 강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주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지홍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에서 65세라는 연령 기준으로 인해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만들어버렸다"며 "이원화에 따른 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법이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이어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의료, 직업재활 등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고령화되는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재병 기자

영국 왕실서 마시는 '저지우유', 제주서도 본격 출시

道, 제주우유와 개발 마쳐

영국 왕실에서 마시는 '저지우유'〈사진〉가 제주에서도 개발돼 본격 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우유와 함께 도내 저지종 젖소에서 생산된 '제주 저지우유'의 개발을 마치고, 본격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갈색 털을 가진 저지종은 영국 왕실 전용 우유를 만들기 위해 영국 해협의 저지섬에서 자란 소품종이다.

홀스타인종에 비해 생산량이 적지만 유지방과 유단백 함량이 높고, 체내 소화·흡수가 좋은 A2 β-카제인의 유전자 보유 비율이 높아 고급 프리미엄 우유로 평가받고 있다.

저지종은 홀스타인종에 비해 체구가 왜소하고, 사료 섭취량이 적어 메탄가스와 분뇨를 적게 배출해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에도 효과적이다.

제주도는 저지종 암소 사육 확대를 위해 저지종 우유를 분리 집유하고, 유가공 제품 개발 및 생산 등의 계획을 수립한 유업체와 농가에 수정란과 정액을 공급하는 '젖소 품종 교체 사업'을 추진해왔다.

제주우유는 현재 저지소 110여 두를 사육하고 있고, 하루 700㎏의 원유를 생산 중이다.

제주우유는 연말까지 150여 두, 1톤까지 확대하고 요거트와 아이스크림, 버터 등 신제품을 개발해 다양한 저지 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변화하는 소비자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청정 낙농 원유를 활용한 다양한 유제품 개발 지원과 도내외 틈새시장 공략으로 축산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추진

어촌계 69곳에 홍해삼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해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이달부터 2024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종자마다 적합한 방류시기를 고려해 상반기 4~6월과 하반기 10~12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류되는 수산종자는 홍해삼 102만 마리를 비롯해 전복 64만 마리, 오분자기 32만 마리 등 총 198만 마리다.

제주도는 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어촌계별로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신청 받고, 선호 품종을 공모했다.

이를 통해 마을어장 수산자원 회복 노력도와 해녀 육성 노력도 등을 평가해 69개 어촌계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1997년부터 2023년까지 26년 동안 사업비 326억원을 투입해 홍해삼, 전복, 오분자기 등 수산종자 3700만 마리를 방류했다.

강재병 기자

제주 식품대전 19~21일 컨벤션센터서…한중일 맥주축제도

'2024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With 한·중·일 맥주축제'〈포스터〉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펼쳐진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ICC제주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맥주 기업의 홍보·판매와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는 전시판매관, 6차산업 홍보관, 사회적경제기업관, 물 홍보관 등 다양한 테마관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100개 업체, 120개 부스가 참여한다. 도내 유명 1차 상품과 가공식품, 외식업체와 베이커리, 디저트 등 제주 식품 트렌드를 이끄는 대표 식품 기업과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도내 최초의 '한·중·일 삼국 맥주축제'가 함께 열려 눈길을 끈다.

또 도내 식품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바이어 초청 구매·수출 상담회가 진행되고, '푸드테크 콘퍼런스'도 열린다.

소규모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서귀포시, 23일까지 추가 접수

서귀포시는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소규모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사업'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경지면적이 0.5ha(5000㎡) 이하인 소규모 농가 경영주다.

다만 3년 이상 제주도 거주 청년농업인(19세 이상 45세 이하) 경영주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농약, 비료 등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다. 농기계 등 시설장비(50만원 초과), 면세유 등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